



# 報會窓同總士空

發行人：全 春 雨  
編輯人：姜 容 求  
印刷人：孫 榮 壽

(住所)：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新吉 7洞 1178番地 (郵便)：150-057 (電話)：02-845-1090 (FAX)：02-845-1091 (非賣品)

## 회보 인덱스

- 02 ● IMF 對應戰略
- 03, 04 ● 국민통합을 위한 새가치 재연
- 05, 06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 07 ● 秩序意識
- 08 ● 잊지 못할 생도 선배님
- 09 ● 總同窓會 消息
- 10 ● 母軍·母校 短信
- 11 ● 修身健康管理法
- 12 ● 廣 告

### 취 임 사

## 6代會長就任

### 존경하는先輩, 同僚, 後輩 同門 여러분!

모든 면에 不德非才한 저에게 總同窓會 會長職을 맡겨주신데 對해 個人的으로는 무한한 榮光으로 생각하나 同窓會를 活性化하는 莫重한 責務앞에 격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간 空士總同窓會 再建과 發展에 獻身努力하신 歷代 會長님들의 勞苦에 깊은 感謝를 드리며 그동안 쌓아놓으신 業績을 繼承發展시키는데 渾身の 힘을 다하겠습니다.

母校는 우리에게 爲國獻身의 길을 가르쳐 주었고 조국하늘에 젊음과 情熱을 바칠 수 있도록 航空知識과 技術을 익혀 준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러운 마음의 故鄉입니다.

空軍士官學校는 來年이면 開校한지 半世紀가 되며 그간 輩出시킨 卒業生만도 7,000여명이며 星武人은 누구나 祖國領空守護의 使命完遂뿐만 아니라 航空宇宙科學技術發展과 産業育成의 尖兵으로서 國家安保와 繁榮에

寄與했던 功績이 至大했다고 自負합니다.

이제 우리는 名譽心과 自負心을 견지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돕고 사랑하는 星武人의 自존심을 드높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기 동안에 同창회 소식지를 발간 기생별 활동사항 公知와 會員相互間의 情報交換으로 親交活動을 強化할 것이며 時間이 허락하는 대로 時局講演과 教養講座를 순회하여 將兵들의 士氣振作과 精神武裝 強化에 이바지하도록 計劃實踐코자 하오니 講士로 위촉되신 同門은 積極 參與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空士開校 50周年 行事は IMF時代에 걸맞게 알차고 겸소하도록 母校와 協議하여 지원하도록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同窓會 基金造成은 時急한 뿐 아니라 어려운 問題이오나 同門諸位께서 協助한다면 소기의 成果를 達成하리라 믿습니다.



全 春 雨(6기)  
· 前 空士校長  
· 空軍 豫備役少將

모든 일이 다 그러하듯이 한 사람의 의욕이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편달 그리고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星武臺

북 공산집단은 무장간첩 잠수정 침투사건과 연변 핵문제 등에서 일련의 생떼작전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공색할 때 나오는 이중성의 발로이다.

과거 50년 동안 북한 공산집단의 무력도발과 위장 평화공세 그리고 남침하고도 북침이라고 덮어씌우는 수법을 줄곧 써왔다. 과연 그들은 정상적인 인간인지 아니면 양심이 없는 금수인지 알 수가 없다.

어찌 비인간적인 그들과 인도주의나 동포애로써 이슥의 우화에서 나오는 햇볕정책을 구사할 수 있으며 화해와 협력을 기

대할 수 있겠는가?

불리하면 엉뚱한 트집을 잡아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유화제스처를 쓰는게 저들의 생리이다.

내기 시작했다.

북측은 지난 30일 잠수정 회담에서 잠수정 승조원 시체 송환에 대해 정적 목적이나 선전에 악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우리측이 시체 9구를 인도할 때 이들의 집단자

선으로 둔갑시키려고 시도하면서 7월 12일 동해시에서 새로 발견했다는 시체를 가지고 무장간첩 사건을 조작극이라고 우리측에 떠넘겼고 잠수정 사건은 한술 더 떠 선원들을 자결하게 만들었다

자는 속셈이 그 첫째이고 핵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 완화와 증류를 얻어내려는 술책이다.

그리고 당분간 남북의 협조 내지 협력의 속도를 조절할 대내적 필요가 생

## 北, 共產集團의 二重性

지난달의 잠수정 침투 사건에 이어 이번 무장공비 시체발견이 다시 터지자 난처해진 입장을 호도하는 방법으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야누스」의 얼굴을 드러

살 사실을 명시한 인수인계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지난 16일의 잠수정 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 이창복은 「미군과 남조선이 지난 6월 22일 조난당한 잠수정을 침투

며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북의 의도는 뻔하다. 잠수정 사건, 무장간첩 사건 등 일련의 돌출변수를 강공으로 몰아세워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해보

긴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는 한·미간 공조를 더욱 다져 의연하게 대처하며 대북정책에서 정경분리와 햇볕론의 재고가 필요하다.



姜容求(6기)  
總同窓會事務總長

우리나라 經濟는 重病을 앓고 있다. 산소마스크를 쓰고 지난해 12月 3日 入院하여 IMF라는 메스로 수술을 받으려고 한다. 대기업은 좌초하고 중소기업은 하루에 2백여 개가 도산하며 근로자는 5천여 명의 실직자가 생겨나고 지금 현재 150만명의 실업자가 생겼다고 한다. 실업률은 7%, 30년 만에 최악의 상태이다. 세계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외채가 많은 나라 高熱現狀이다. 그러나 전국민이 흥역을 치를 가능성이 많다. 아마도 10년을 제대로 하여야 정상 국가로 회복이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생각만 하여도 끔찍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국정을 맡았던 대통령이나 각료들에게 있겠지만 우리 전국민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너무 흥청망청했다. 쥐짴도 없으면서 목에 힘주고 천방지축으로 날뛰었다. 1만\$ 소득에 2만\$ 소비를 했으니 그 결과야 뻔한 일이다. 6·25 이후 가장 큰 국난이라고 한다.

5천년 동안 우리 경제는 잔잔한 물결이었다. 농경사회라 날씨가 좋으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못하면 흉년이 들어 고생했지만 오늘과 같은 산업사회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1962년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개발 5개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는 도약하기 시작했다.

로드드 교수의 말처럼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과 같이 상승기류를 탔다. 그리고 '87년까지 25년 동안 年12%의 고도성장의 기적을 낳았다. 세계 개발도상국들은 우리의 경제를 배우려고 온갖 짓을 다했다. 한국을 배우자고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를 비롯해서 중국, 소련 등 세계 각국이 한국을 칭찬하고 부러워해서 한국으로 몰려왔다. 중국의 등소평은 한국을 배우라고 지도층들에게 지시했고 소련의 고르바초프도 KGB를 풀어 한국 경제를 배우도록 지시한바 있다.

그래서 한국은 아시아의 용이라 했고 아시아 네마리 용 중에서 제일 먼저 중천한다고 한국을 부러워했다. 용이 비대해지면 진찰을 해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용에 이상이 있음을 알면 병이 커지기 전에 예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해서 생명이 지장이 없도록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데 자기도취되어 살아왔다. '87년도 6·29 선언으로 민주화한다고 개방 자유바람이 들기 시작해서 바람이 들었다. 풍을 맞은 것이다. 풍을 맞으면 사지를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 氣가 떨어졌다. 기가 끊어지면 기절하고 기가 막히면 죽는다. 그러면서도

# IMF 對應戰略

계속 춤만 추었다. '88년도 올림픽을 치르면서 더욱 기고만장했다. 88올림픽 때 개막식과 폐막식은 실로 예술이었다. 그 넓은 초록색 잔디밭에 어린이가 굴림쇠를 굴리는 장면은 세계의 눈동자가 한군데로 모여졌다. 세계가 원더풀을 연발하자 우리는 더욱 자만심에 빠져 들어갔다. 병에서 제일 큰 병이 자가당착적 자만심이다. 이 병에 걸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의 위치나 방향감각을 잃고 만다.

우리 경제의 重病原因은, 첫째 借入經營의 高利貸(70%), 둘째 政大經營者, 셋째 官治金融, 이 큰 持病이 악화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위기를 누구 탓이라고 할 수가 없다.

'90년에 삼패인을 터뜨렸다. '92년에 들어와서는 선진국 진입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3D 현상이 일어났다.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산업현장에 근로자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사람은 남아돌아가는데 외국 근로자들을 수입하게 되었다.

'95년에 국민소득이 1만불이 되자 마치 선진국에 들어온 착각 속에 만세를 불렀다. 이때부터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노래하며 2만불 과소비 생활을 하게 되었다. 외국으로 놀러다니고 여비는 만불로 늘어나고 외국에 투자는 마음대로 했다. 그러나 달러의 유출이 될 수밖에 없다. 외국사람들은 국민소득 3만불이 넘어도 근검절약 모든 것을 자제를 하는데 우리는 목에 힘주고 거들먹거렸다.

'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加入하면서 先進國에 진입한 것처럼 착각을 했다. OECD에 가입한 나라 29개 중 23국이 서양이고 동양은 일본 하나뿐이다. 이것을 보면 선진국 진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29번째 가입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4개 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왔는데 선진국으로 착각을 하고 소비에 앞섰었다. 그래서 '97년 12월 3일 IMF를 맞아 수술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우리의 目標은 선진국이다. 그러나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수많은 시행착오의 경험을 겪어왔다. 서양의 선진국들은 수백년에서 수십년씩 시행착오를 경험했고 미국도 1929년에 경제공황의 위기를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MF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정확한 자기진단을 해야 한다.

세상의 일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 풀이 있으면 이면이 썩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모든 것은 雙生의 原理 속에 존재한다. 우리는 풀만을 따라 OECD까지 왔는데 국제통화기금 IMF를 맞았다. 따지고 보면 IMF는 우리를 재도

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好機가 될 수 있다.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다. 때문에 이제는 어려운 것을 넘기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특히, 모든 분야에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소비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국민소득 80불의 생활에서 30년의 짧은 기간에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저력을 가진 민족임을 자부해야 한다.

인공위성이 떨어지다가는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역작용을 해야 한다. 낙석이 떨어져 맞는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다. 사람이 나이들어서는 매년 종합진단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오늘날 우리 경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현실적 책임 따져야지요. 영향받은 사람은 산중의 스님, 신부, 수녀, 이들은 그렇게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않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면 近因으로는 첫번째 產業社會에서 정보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산업사회의 여들과 남성시대대로 나타난 정보문화는 겨울과 여성시대라 할 수 있다.

인동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기업은 대기업 중심이든 대기업은 문어발식으로 부실 운영하다보니 공룡처럼 되어버려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좌초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기업은 벤처기업, 모험기업만이 살아남는다.

두번째, 供給者 中心社會에서 消費者 中心社會로 간 것이 '95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물건을 팔게 됐다. 과거는 공급자가 쫓고 소비자는 봉이였지만 소비자 중심의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왕이 되고 神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왔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기업을 왕으로 생각하고 적을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다.

세번째, 閉鎖社會에서 開放社會로 간 것이 '93년 우루과이라운드이다. 다시 말하면 동굴에서 정글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동굴 속에서는 보호하지 않아도 생존하지만 무한경쟁인 정글 속에서는 위험이 따르게 되지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대기업은 금융을 개방하지 않았고, 정책을 세우지 않았다.

맹수는 제일 약한 놈을 잡아 먹는다. TV에서 방영하는 재미나는 동물세계를 보면 사자는 그 많은 누대를 지켜보다가 맨 나중 졸다가 풀찌 가는 놈을 잡아먹는다. 미꾸라지는 천적이 없으면 자라지 않는다. 메기를 양식장에 넣으면 안 잡혀 먹히려고 도망가다가 보면 커진다. 새는 제일 강한놈이 살아난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아프리카 동물원에서 사자가 누를 자주 잡아먹어 사자를 없앴더니 잔부 죽더라는 것이다. 사자가 있을 때는 잡혀먹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건강하게 번창한다고 한다.

오늘날을 전자(전기)혁명시대라 한다. 말하자면 통신, 교통, 컴퓨터 그래서 종교를 제외하고 3대 혁명의 시대라고 한다.

지구는 일체이다. 46억년 동안 식물처럼 살아왔다. 그런데 '85년부터 '98년에 깨어났다. 앞으로 IMF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진단해서 국민에게 보고하고 정경유착에서 벗어나 부정부패를 없애고 대기업이 자기자본의 450%로 경영하던 것을 150%로 줄이고 금융행정을 개선해서 수출에 주력할 때 기업에 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서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계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다. 금융계는 퇴출은행이 생겨났고 대기업에서라도 통폐합을 시행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 속도가 더디고 있다. 우리 경제도 변신해야 한다.

아놀드 박사는 미래는 중앙사상을 가진 나라, 세계철의 나라, 종교를 가지되 싸우지 않고 열린 문화의 나라,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통을 많이 받았던 나라가 지도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 또한 동서양의 많은 학자들은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민족은 유교문화를 경험한 민족 중에서 한자를 쓰는 민족, 정가라질을 하는 민족, 글씨를 사용하는 민족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조건을 가진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그것은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일이다.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다가오는 21세기 통합된 사회에 지도력을 가진 민족이 되도록 다같이 협력하자. 이것이 IMF 時代의 대응전략이 될 것이다.

꿈은 희망을 낳고  
목표가 선다  
목표는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며  
반성한다  
반성은  
실패를 막고  
성공을 한다  
성공은 또 꿈을 키운다



정해영(1기) 평통 자문위원

# 국민통합을 위한 세가지 제언

국민정부 성취의 요체는 국민통합의 구현이 그 적도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문민정부의 공과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적용해 보더라도 자명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착 국민통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채택하는 데는 많은 이분기 있을 수 있으므로 혼선이 오게 마련이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듭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그 교훈을 우리 역사에서 찾아 민족통합이라는 지상목표를 대전제로 하는 국민통합을 합차게 밀고 나가되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킬 국민의 자발적인 호응에 의한 다양한 사회통합으로 꽃피워(문화대국)가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다음 세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함으로써 현 국민정부 성취의 일조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첫째, 3·1자주독립정신을 제대로 계승 발전시켜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민족자존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민족이 주변 4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그 참혹한 역경 속에서 피를 토하며 절규한 독립선언문에서 구구절절히 표현한바 자주독립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후대가 되는 일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체성 결핍증의 증환자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애정신이 아니라 할 것 없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속된 말로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격으로 세 분수를 모르고 거드름만 피우다가 어미소까지 잡아먹은 꼴이 되고 만 것이 아닐까.

이러고도 소의 환란(IMF 한파)이 덮쳐 올 줄 몰랐다니 과연 자치능력이 있는 정부라 가진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서울대의 전경수 교수(인류학)는 이를 가리켜 정치망국과 의병국국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하면서 금모으기 운동이 다름아닌 의병국국의 현대판임을 되내인하고 있다.

한편 국민 대다수는 오늘의 위기를 6·25 이래의 큰 국란이라고 고를 말한다. 군사적 침략이 아닌 구제불능의 외환위기에서 오는 경제적 예측(식민지)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고래로 현실정치가 곧 르교육의 장임을 감안한다면 오늘날 교육받은 야만인의 만연을 너무 할 수 만도 없는 노릇인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금수나 다른없이 수치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

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게 한 위장된 패거리정치의 난맥상을 연출해 온 과정에서 근대화된 수탈과 함께 양산된 거품의 폐해가 사정없이 우리 백성들 어깨 위를 짓누르고 있음을 통감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는대로 거둔다는 격언대로다.

말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빠져진 역사의 교훈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잣대에 집착한 소아의 정치가 혼란과 위기의 주범이 되어 온 셈이다. 즉, 만민에게 이로운 대의를 위해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려는 책임정치의 주체성이 쇠퇴해 온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패거리정치가 묻고 온 권력의 남용과 재물의 도용과 재능의 어용과 지인의 남비 등 무절제한 탐욕과 오만과 물염치의 치부가 각계각층에 만연하여기도 이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과욕에서 빚어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분열과 패역이 심화되는 과정에서(국익을 외면) 천문학적 외채를 끌어들여도 재정의 중요인양(정경유착) 흥청망청에 눈이 먼어 같이 깔깔려 떠내려온 꼴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장기적이고도 치밀한 외채 상관계획 하나 없이 모든 분야에 걸친 정치외교 현상으로 인한 과잉상태(과잉투자가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외신의 진단)의 악순환으로 효율은 떨어지고 질서가 흔들리다 보니(부실금융기관이 고임금의 주범) 눈떠이저러 늘어난 외채를 제재가 약약차 못하다가 결국 국가부도의 위기를 어느날 갑자기 공개하고 나섰지만 만사지탄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를 가리켜 외신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국에서 삼페인은 너도 인적 터뜨렸다."라고 충고한바 있으며 환란 이후에는 그것이 "한국인의 허세와 오만이 자초한 재앙"이라고 따끔하게 비판한바 있다.

그렇다면 때는 이미 정면 늦은 것일까?

그런다고 망연자실하여 울분을 터뜨리고 좌절해서 될 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명철하게 인식하여 이성을 되찾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그 해법을 우리나라 근대사의 정신적 지주이자 민족정기의 원천인 3·1자주독립정신이라는 외연한 정체성에 뿌리를 둔 불굴의 주체성 회복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호랑이에게 물려도 도 제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에도 있듯이 비록 참담한 추락을 개인적으로 감내하기는 어려우도 이 한몸을 바쳐서라도 국가부도만은 막아야 한다는 애국충정으로 돌치려는 순수한 제정신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능히 재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진실로 기미년 당시의 3·1 운동이 보여준 조상님들의 참담한 희생과 비통한 굴욕에 비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그 런대로 과분하다는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 내실있게 대응한다면 족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그 숭고한 정신체계를 우리국민 모두의 잣대로 삼아 근본적인 자기개혁의 험난한 길을 극복해 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국민통합의 산 교훈으로 삼아 그 당시의 순수하고도 희생적이며 애국적이던 한겨레의 자화상이 바로 우리의 참모습임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초고속의 산업화 과정에서 물질문명에 매몰되었던 조상전래의 정신문화적 결핍체인 3·1자주독립정신의 원형이 얼마나 손상(불의)되고 오염(불신)되고 추해졌는지(부정직)를 자성하고 치유받는 심정으로 돌아서는 일이 곧 주체성의 회복인 것이다.

여기서 복족의 주체사상이 긴급성을 신격화하기 위한 날조된 허구(기아민족의 화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추향의 통치력(우민정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허수아비 주체사상(사회주의의 탈을 쓴 봉건주의)을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민족을 주도해갈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야 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의당 준비되어 있어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체성이 민주화 과정에서 훼손되고 소홀히 되어 배대있는 주체성 계승발전이 뒤쳐 온 사실을 시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정신적 개혁(역사적 교훈에 뿌리를 둔 주체성 회복)이아말로 환란 극복의 초석이요, 대전제임을 깨달아 국민통합의 저력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진해서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 새 패러다임의 이정표로 떠오르게 하는 일방 국란의 위기를 민족 통합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슬기를 발휘할 때인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가짜 주체사상이 스스로 소멸되는 빈자리에 우리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민주적 주체성을 3·1자주독립정신이라는 역사적 교훈에서 찾아 제대로 계승 발전시켜 가는 일이 초기의 과제인 것이다.

진실로 "독립선언문"에 투영된 3·1자주독립정신과 거족적인 비폭력 독립운동이야말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평화애호적이고 문화민족다운 도덕정치를 세계만방에 선언한 우리민족 본연의 정체성이자 불굴의 주체정신을 재확인하고 그 후예로서 진실보한 애국 충정을 발휘할 때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더욱 연구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요청됨은 두말할 것도 없다. 특히 언론을 비롯한 각종 학교나 연구기관이나 종교계나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들을 통하여 3·1자주독립정신이 무엇이고 그 현대판 정신체계의 발전방향이 어디인가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연구 발전시켜(논문창출) 가면서 정규교육으로 이어져야 마땅한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수치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주체성이 분명한 국민을 길러내는 데에 봉사하는 정치가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다(구실적 역할).

그것이 곧 국민교육이요, 국가이념을 구현하는 길이요, 국가이익을 지키게 하는 가치관의 표준이며, 국민통합의 요체인 것이다.

가령, 유사한 환란에 처한 태국에서는 수상을 위시한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깨끗이 책임을 지고 자진사임했다는 사실보도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최소한의 책임정치를 회복하는 데서 살길을 열리게 됨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당선가능성이 면죄부로 통용되는 사회는 거부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길게는 평화통일과 민족통합에 부합되는 안목의 비전을 가지고 국민통합을 추구하게 되 조상전래의 정통성(문화민족)과 착하고 무욕의 정체성과 불굴의 주체성을 3·1자주독립정신에서 찾아 일체의 거품을 걸어 범으로써 온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발시켜 다양한 사회통합(통일문화)까지 이구석 저구석에서 어우러지게 될 때 비로소 국민정부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온 국민이 같이 기원하는 시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즉, 건국 50주년이 되는 '98년 8월 15일 경축식을 기점으로 식순에 넣어 시행하되 1분간 사이렌 소리에 맞추어 전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경건히 기원하는 순서를 통일의 그날까지 매년 가지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광복 50주년이 되던 '95년도에 시작하도록 임의 건의(범중단 남북교류추진협의회 명의)된바 있으나 미결로 미루어 온 사안이지만 국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건국 50주년의 깊은 뜻을 더한층 빛내게 할뿐더러 국민통합의 열쇠가 되리라 확신한다.

아무튼 사랑하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지 않을 사람이 있으랴만 그럴수록 온 국민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일제히 머리숙여 간절히 기원함으로써 일체감을 형성해 가는 일이 귀하고 복박한 길임에 틀림없다고 보는 것이다.

(3면에서 이음)

이틀이면 매년 6월 6일 현충일 식에서 1분간 사이렌 소리에 맞추어 묵념을 드려 온 것이 순국선열과 전몰호국용사의 명복을 비는 과거사에 대한 호국정신을 기리는 상징인데 반하여, 평화통일기원의 1분간 묵념은 미래지향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통일선진 조국의 미래상을 기리는 목표지향적 기원이며 민족통합의 비전을 심어주는 소중한 상징이 될 것이다.

이는 물질문명에 뒤쳐 온 정신문화의 뚜렷한 목표를 제시해주는 이정표로도 작용할 것이다. 자유분방하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기적인 경쟁의식의 포로가 되어 방황하는 신세대들의 주체성을 일깨워주고 퇴폐적인 유흥을 몰아내며 무례한 행동으로 치달던 폐단을 순화시켜 주는 촉매제 역할도 할 것이다.

불의한 힘(폭력)이 아닌 신력을 바탕으로 한 정의를 추구하되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익에 협력함으로써 용서와 화해 위에 평화와 공평과 일치관을 이루어가는 문화적 국민통합의 역군으로 진군하는 대열에 앞장서게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원대한 민족통합을 지향하는 국민통합의 구체적인 모습이며, 다짐이요, 결의요, 열원인 동시에 오늘의 환란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저력을 응변해 줄 것이다.

셋째, 신생대한민국의 산과역을 기리는 "UN의 날"을 국경일로 다시 복원하여 기념하자는 것이다.

건국 초부터 매년 10월 24일을 "UN의 날"로 지키게 한 제도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린 옳은 결정이었다고 동의하는 연유에서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구리가 울창이 때를 생각 못한다."라는 말처럼 사람이고 나라이고 간에 그렇게 처신해서는 오늘날과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우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진실로 8·15해방 직후의 그 박한 감격과 혼란 속에서 날로 첨예화되어가는 좌우익간의 격돌을 극복해 가면서 결국 UN개입에 의한 자유총선거를 처음 실시하여 먼저 제헌국회를 구성하고 민주공화국헌법을 제정 공포한 후 그 의회에서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여 정부를 출범시키기까지

UN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으며 오래오래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통일외교상 매우 유리한 배경인 것이다.

그 후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던 우리나라는 UN이 지원하는 식량을 비롯한 구호물자에 힘입은바 크다는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특히 2년이 못되어 북측 공산군의 무력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자유수호를 위한 6·25한국전쟁"에서 UN결의에 의한 자유우방 16개국의 신속한 참전으로 이를 지지하였으며 가세한 중공군을 침략자로 낙인찍는 의결까지 해냈던 것이다.

휴전 후 지금까지의 경과만 하더라도 휴전협정의 당사자로서 UN사령관이 작전지휘권을 계속 장악하여(평시에는 한국군이 인수) 관문점 군사정전위원회란 가동하면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시대적인 이종과세의 온상(구정연휴)을 제 공해가면서 표모오기에 눈이 어두워 잘 지켜 온 UN의 날을 없애 버린 일은 과소비를 조장하고 선진적 주체성을 포기하거나 다름 없는 이중적 단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우리의 관심사는 한국인의 위상을 전향적 선진세력화(국민통합)하는데 있는 것이지 그냥 두어도 별 지장이 없을 민족명전을 공식화하여 이를 탐닉하는 모습으로 한국인상을 되돌려 놓은 일은 역사의 후퇴를 의미할 뿐임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공히 UN에 가입한 오늘의 상황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상대적 우위는 앞으로 전개될 통일조국을 평화적으로 있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주도하게 만드려고도 확실한다. 이를 위해 많은 인재들이 UN기관에 진출하고 있으며 탈냉전시대의 세계화의 조류가 종래의 가졌던 국민국가 의 틀을 뛰어넘어 더불어 잘사는 공생공영의 틀로 옮겨가는 차례에 그토록 애절하게 그려놓은 도덕정치의 비전을 우리 한반도에서 민족통합으로 이어갈 때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필칭 한반도를 세계의 화약고로 보고 있는 세계인들을 향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평화적인 통일한국"으로 보답할 수 있는 문화 민족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환위기부터 슬기롭게 극복

하되 이를 가능케 할 담부와 해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3·1자주독립정신"이라는 고귀한 역사적 교훈 속에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민족이 되느냐 못 되느냐에 있음을 길게 고찰하였 다. 즉, 우리 민족 본연의 정체성을 재인식하고 그간에 중병에 시달려 온 주체성을 말끔히 회복하여 재정신으로 구심점을 잡아 가는 책임정치라야 생명력 있는 국민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에 바탕을 둔 국민정부가 비로소 수부러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건국 50주년을 맞게 되는 금년 8·15를 기점으로 경축식순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묵념을 1분간 동시에 드리게 하라고 제의하였다. 명실상부하게 일체감을 재고하는 상징 조차를 봉인의 그날까지 계속하는 일이 국민통합의 열쇠요, 미래지향적인 축복과 영광의 길임을 부인할 사람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UN의 날"을 복원하여 신생대한민국의 대부나 다름 없는 UN과의 깊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일이 전향적인 안보와 통일외교상의 명분 있는 배경임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국익을 확대 재 생산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이며 세계화에 빨리 눈뜨게 한 참구임을 시사해 준바 크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세기말적 전환기의 혼란과 갈등을 제어할 지구가족의 한 모델 국가로서 21세기의 새로운 역사적 무대를 빛내 보자는 꿈과 의욕을 불러일으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해 본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족통합으로 승화되어 오랜 단절의 골을 메움으로써 마침내 평화통일의 성업성취로 세계평화에 기여하였 노라고 보답할 수 있는 길이 국민통합을 위한 새가지 제언을 최우선적으로 구현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정부를 이루어 가는데 있을 을 밝혀 둔다.

### 견 · 강 · 비 · 결

- ① 소육다채(小肉多菜) 고기는 적게 하고 채소를 많이
- ② 소염다초(小鹽多醋) 소금은 적게 하고 초를 많이
- ③ 소당다과(小糖多果) 단 것은 적게 하고 과실을 많이
- ④ 소식다저(小食多咀) 적게 먹고 많이 씹기
- ⑤ 소번다면(小煩多眠) 번뇌(염려, 걱정)는 적게 하고 잠은 많이
- ⑥ 소노다소(少怒多笑) 노(성내는 것)는 적게 하고 많이 웃는다.
- ⑦ 소의다욕(少衣多浴) 옷은 적게(얇게) 입고 목욕은 많이(자주)
- ⑧ 소욕다시(少慾多施) 욕심은 적게 하고 많이 베풀라.
- ⑨ 소언다행(少言多行) 말은 적게 하고 많이 행하라.
- ⑩ 소차다보(少車多步) 차는 적게 타고 많이 걸어라.

원래 닭은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울고, 개는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짖는데 요새 와서는 닭은 아무 때나 울고, 개는 아무나 보고 짖는다. 그 까닭은 시계가 없는 집이 없으며, 누구나 시계를 차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닭은 시간을 알릴 필요가 없게 됐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는 도둑이 너무 많아 주인 보고도 짓고, 낯선 사람 보고도 짓으며, 진짜 사람 손님보고도 짖는다. 이것은 물질문명이 극에 달한不信社會를 諷刺한 말이지만 개의 경우는 좀 다르

다. 닭의 울음을 흉치는 것만이 도둑이 아니라 닭을 속이는 일이 더욱 큰 도둑인 것이다. 어느 아버지가 목욕탕에 들어갔다. 아버지가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 시원하다.」고 했더니 아들이 아버지의 시원하다는 말을 믿고 텀뿔 욕탕에 들어가니 너무 뜨거웠다. 「아이 뜨거워

기겁을 하고 뛰쳐나오며 하는 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군」 하더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不信의 時代에 살고 있다.主婦가 두부 한 모를 사는 데도 「가격에 속고 있지 않은가?」, 「진짜 두부인가」 하는 의심을 한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두부에 석회를 섞

어서 만들고, 고춧가루에 빨간물을 들인 톱밥을 섞어서 팔았고, 食油類에 공업용 기름을 섞었으며,

커피에 담배재를 넣어서 파는 등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았다. 집을 많이 들고가는 사람에게 태워준다고 好意를 베풀면 人身賣買者로 인정, 거절하는 婦女, 길을 묻는 노인을 유괴범

으로 취급 도망가는 아이들. 실로 닭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제아무리 뛰어난 슬기와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혼자만으로는 살 수 없으며 서로 어울려 사는 데서 사회가 발전한다.

더불어 살아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믿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 우리가 우러러 바라는 福祉社會도 바로 이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편 집 실>

## 不信의社會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宋大焜(17기)

· 정치학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원

## 1. 문제제기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는 남북한간은 말한 것도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자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란 한 마디로 남북한이 어떤 형태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1950~53 사이 피비린내나는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끝내고, 당시 UN군, 북한군, 중공군 사이에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휴전협정을 체결한 후 거의 반세기 동안 평화를 보냈고 있다. 그 동안 한반도에서는 지난날 한국전쟁과 같은 대규모의 전쟁은 아니었지만 북한에 의해 크고 작은 수많은 무장도발, 무장공비침투, 전쟁위협, 테러, 간첩전략 등 휴전협정에 위배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휴전협정 자체가 권위와 존엄성을 많이 상실하였으며, 특별한 조치없이 이대로 계속 방치하는 경우,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고찰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우선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함에 있어서 현재 무엇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들로 되어 있는가를 하는 현안 쟁점 혹은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다음으로 우리가 취하여야 할 과제들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 2. 현안 쟁점 및 문제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한반도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 혹은 문제점들은 무엇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및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 가. 쟁점/문제점 1

남북한간 "한반도 평화" 및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 차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점 혹은 쟁점 중의 하나는 남북한간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개념과 "통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큰 차이점들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현재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에 어떤 상태를 평화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즉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남북한이 어떻게 되는 것을 통일이 된 상태라고 하는가 하는, 즉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개념면에서 많은 차이점들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을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시점에서부터 끝까지 사사건건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화란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혹은 "전쟁이 없이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며 이러한 점을 소극적인 평화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한다. 즉, 소극적인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혹은 "폭력이 행사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발발케 하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거한 상태"를 적극적인 평화라고 정의한다. 즉, 적극적인 평화란 직접적인 전쟁을 포함하여 비록 직접적인 전쟁은 아닐지라도 직접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 못지 않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해치게 하는, 예를 들면 민공, 기아, 정치적인 탄압 등 구조적인 상상의 요소들이 제거된 상태를 적극적인 평화라고 정의한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개념에서 대단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소극적인 의미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력의 충돌없이 국내적, 국제적으로 사회가 평온한 상태"라고 개념짓고 있다. 북한도 소극적인 개념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행동이 중지된 가운데 평화상태를 회복한 상태"라고 개념짓고 있다.

정의하고 있다. 남한은 주장하기를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하는 기본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지난날 남한의 역대 정부들은 항상 북한에 대하여 대남적외전 전략을 포기하라고 주장하여 왔던 것이다. 북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분단 이후 지금까지 무려 100여 회에 걸쳐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부하여 왔다.

문제는 남한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를 한반도 평화로 확보 방안으로 해석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북한의 대남공산화 통일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핵심내용으로 해석하면서 한반도 평화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진실된 의미는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점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함에 있어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에 대

해 통일을 달성하며, 통일된 후 국가가 취하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여 북한은 통일의 방법을 구태여 평화적인 방법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통일된 후 채택하는 이념은 철저히 인민민주주의, 즉 사회주의라는 점이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남북통일을 달성하기 전 중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남북한간의 이러한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는 그 목표 자체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과정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많은 상이한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 나. 쟁점/문제점 2

남북한간 "평화체제 구축 추진 방법상" 큰 차이

남북한간에는 한반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표 2]

[표 1] 남북한간 "한반도 평화" 및 "통일"에 대한 개념 차이

	남한	북한
한반도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력충돌없이 국내적, 국제적으로 사회가 평온한 상태 (소극적 개념)</li> <li>·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력충돌없이 국내적, 국제적으로 사회가 평온하고, 북한이 대남공산화 통일전략을 포기한 상태(적극적 개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인 행동이 중지된 가운데 평화상태를 회복한 상태(소극적 개념)</li> <li>·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인 행동이 중지된 가운데 평화상태를 회복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진 상태(적극적 개념)</li> </ul>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헌법 제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무력을 철폐시켜 그 식민지 지배를 종식시키고,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국을 통일한다(조선로동당의 강령 전문).</li> </ul>

그러나 적극적인 개념에서 남북한은 큰 개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평화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력충돌없이 국내적, 국제적으로 사회가 평온하고, 북한이 대남공산화 통일전략을 포기한 상태"라고 개념을 짓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인 행동이 중지된 가운데 평화상태를 회복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진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한반도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남북한은 무력충돌이나 군사적인 행동이 없다는 점은 일치하나 남한은 북한이 대남공산화 통일전략을 포기함을 완벽한 평화로 해석하고 있고, 북한은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철수된, 즉 인민이 한반도에 없는 상태를 평화상태로

한 남북한간의 관점의 차이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남한은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을 하되 그 방법은 전쟁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에 입각하여 통일을 달성한다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런 반면에 북한은 현재 남한의 독립된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다는 전제하에서 통일을 위한 우선조치로서 미국의 식민통치로부터 남한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남한정권의 전복을 위하여 남한국민들이 투쟁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여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북한에서 통용하고 있는 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주의"로 통일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남북한간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점은 남한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방법에 의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한의 경우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으로서 현재의 휴전협정을 그대로 존속하면서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혹은 국제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타국들을 참여시키는 여하간에 불가침을 보장하는 잠치를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잠치가 확실해 보장이 되면 남북한간에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이렇게 하여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면 남북한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유지 및 남북한 통일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민족공동체 통일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전개하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5면에서 이음)

[표 2] 남북한간 평화체제 구축 추진 방법상 차이

남	① 현 정권체제 유지 → ② 상호불가침 보장(남북한간/국제적) → ③ 교류, 협력 증진/상호 신뢰구축 → ④ 자유민주주의 수호 통일
북	① 현 휴전체제 파괴 → ② 북미평화협정 체결 → ③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 → ④ 남북연방제 실시 → ⑤ 사회주의 통일

그러나 북한은 현재의 휴전체제를 파괴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본적인 조건으로 생각하고 우선 현재의 휴전협정 무효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4자회담을 통한 북미간 단독으로 하든 북한과 미국 사이에 우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일단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을 상실하였다는 논리를 펴면서 주한미군을 철수케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남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토록 노력을 하여 남한 내에서 공산화 투쟁에 집결할이 되는 모든 장애물을 철저히 제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여 서서히 남한을 사회주의 이념으로 짓게 한 후 사회주의로 통일하는 것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간에는 현 휴전협정의 준수와 파괴,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인식과 저해요소라는 인식, 교류협력에 대한 선호와 무시, 자유민주주의 수호 통일과 사회주의 통일이라는 목표의 상이함 등 많은 차이점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 방법상의 큰 차이점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크나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우리의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남북한 사이에는 여러 가지 쟁점 혹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쟁점들을 요약하면 결국 남북한이 상호공존을 인정하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북

한이 남북한 상호공존을 인정하는 자세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임하느냐 그렇지 않고 북한이 남한과의 상호공존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로 평화체제 수립에 임하느냐 두 가지로 크게 축약할 수 있다. 북한이 남한과 상호공존함을 전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임하는 경우와 철저히 남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즉 남한정부의 전복을 획책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임하는 경우는 우리의 대책은 전혀 상이한 대책이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의 두 가지 경우 다른 가정하면서 우리는 각각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북한이 남북한 상호공존 인정시(대남공산화 통일을 포기하는 경우) → "화해에 의한 평화(교류, 협력 증진)체제" 구축

북한이 남북한의 상호공존을 인정하는 경우 어떠한 전차를 밟아서 어떻게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 할까? 북한이 지금까지 추구하여 온 대남공산화 통일전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화해에 의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공산화 통일전략을 포기한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면(이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치밀하고 철저한 방법을 동원하여 입증하여야 함.)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를 거쳐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통일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우선 제1단계는 남북한간에 한반도에 대한 평화개념 및 통일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공통개념이 되도록 조정하는 단계다. 이러한 조정은 남북한이 직접 합의하여 조정하여도 좋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자회담을 통하여 하여도 좋다. 어쨌든 현

제와 같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개념이 전혀 별개로 되어 있을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을 막기 위하여 우선 남북한간에 한반도 평화 및 통일에 대한 개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단계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안을 만드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만들어지는 평화안에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인가 하는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론, 남북한에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4개국 당사자론, 남북한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국을 포함한 6개국 당사자론, 남북한에 자유민주진영 참전 16개국, 공산권진영 참전 2개국을 포함한 20개국 당사자론 등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을 적용하면 된다.

평화체제 구축안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고 남한을 공산화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산화 통일전략 고수 및 남한정부 전복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획책한다면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평화는 북한을 힘으로 제압하는 "힘에 의한 평화"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힘에 의한 평화를 한반도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1단계에서 국가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안보외교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안보역량 강화는 국내적으로는 군사력 강화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군사외교를 강화하여 북한의 군사역량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군사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주한 미군은 특히 철저히 주둔케 하여야 한다.

제2단계에서는 휴전협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에 기여 북한이 휴전협정을 무효화시키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평화협정 혹은 남북한 기본합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면, 북한이 대남적화차원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점은 없는가 하는 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합의하여야 한다.

제3단계에서는 북한의 대남적화 통일전략을 포기토록 하기 위하여 끝까지 유도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공산화 전략을 포기토록 유도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유도 노력 자체를 포기하지는 말고 끈기를 갖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하고 중요한 하나의 과제이다.

마지막 제4단계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끝내 대남공산화통일을 포기케 한 후 한반도를 평화화해 통일이하는 단계다. 북한이 끝내 힘에 의한 공산화통일을 시도한다면 한반도에 더 이상 공산주의로 통일하려고 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도록 힘으로써 그 근원을 제거

한 내용은 ① 남북한간 적대감정 해소 방안, ② 남북한간 전쟁방지 방안, ③ 도전 및 도발시 대처 문제, ④ 평화안 불이행시 책임추궁 및 이행방안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제3단계에서는 마련된 평화안을 실천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마련된 평화안이 실천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천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 단계에서 남북한은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화해에 의한 평화를 확실히 확보하여야 한다.

북한이 남북한 상호공존 인정하지 않을 경우(공산화 통일전략을 고수할 경우) → "힘에 의한 평화(국방, 안보역량 강화)체제"

마지막 단계인 제4단계에서 남북한은 상호 합의하여 평화통일을 확보하여야 한다.

북한이 남한과의 상호공존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취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여야 하는가? 북한이 끝내 남한정부의 존재를 인정

하는 것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참된 노력이다.



아시아 금융위기로 최근 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중국 경제의 최고 책임자는 역시 개혁의 기수 주동자(朱鎔基) 신임 총리 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도 당정 권력 서열 1위라는 점에서 볼 때 폭풍처럼 몰려올 경제 개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그가 앞으로 도래할 지 모를 경제난국에 중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밝힌 이른바 24자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3월 19일 폐막된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에서 장쩌민 주석

세를 우선 가져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요령으로 꼽는다. 이외에 埋頭苦幹(매두

## 江澤民의 24字 經濟處方

이 누구이 강조한 24자 방침은 무엇보다 중국 경제에 대한 강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와한 부유고 1천6백억 달러 연평균 성장률 8%가 예상되는 금년도 경제성적표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적대(信心)견정(見定)심(心) : 결코 한 믿음을 가진다.)의 자

다음으로는 心中有數(심중유수 : 언제나 대책을 가진다.) 또 未雨綢繆(미우주우 : 사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대비한다.) 등의 다짐으로 이어진다.

위기 도래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한다는 沈着應府(침착응부)도 장 주석이 강조하는 난국대처

고간 : 머리를 파묻고 열심히 일한다.) 趨利避害(추리피해 : 가급적 이익을 위해 나아가고 피해를 멀리 한다.)의 노력까지 더해지면 중국을 덮칠지 모를 위기는 언제든지 충분히 해결 가능해진다 그의 해석이 그러하다.

장 주석은 이러한 노력

을 통해 달성할 올해 중국 경제의 목표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가 공식석상에서 자주 거론한 것은 ▲ 성장률 8% 유지와 경상수지 균형 확보 및 실업 압력 완화, ▲ 수출 확대와 2백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 ▲ 인민폐환율 안정 등 세 가지이다. '90년 이후 물가 상승률 통괄평창 등의 우려를 씻지 못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장주석의 24자 안목과 노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편 집 실>

# 秩 序 意 識



金 容 植 교수  
· 法王佛敎大學

秩序意識이란 三綱五倫에 있는 長幼有序를 말하는바 깊은 의미로는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와 서열이 있다는 뜻이다.

즉, 어른은 아이들을 귀하게 사랑하며 아이들은 어른을 높이 존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차 말 때에 차례로 줄서는 것과 또는 기차표 살 때 차례로 줄서는 것을 질서의식으로 아는데 이것도 질서의식은 되지만 진정한 질서의식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오문에서 말하는 질서의식은 질서 속에 예절이라고 하는 禮의 美德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덕이라 함은 차례로 줄을 서는 것이라도 그중에 장애인과 노약자가 있으면 차례를 양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의 현상은 어떠한가? 만일 양보하는 일이 있으면 새치기 또는 속도위반이라 하여 현장에서 참피를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안 바쁘나 하며 오히려 양보한 사람을 부당하다고 면박을 주기 일쑤다. 이러한 사정이고 보면 예절이 함축되어 있는 질서의식은 실종되고 후조건 차례대로 줄을 서는 것이 대중적 질서의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上下老幼가 없으므로 차를 탄 후 차내의 좌석 양보는 더욱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경로석과 장애인석에는 젊은이가 앉아서 아예 눈을 감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현상은 실내에서 뿐만 아니라 실외 사회의 어느 곳에서도 허다히 볼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래서 讓步는 美德이라 하였다.

사회가 아름다워야 그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 온 사실이다. 국민의 질서의식은 그 나라 국가운명을 左右하는 것으로서 은 국민의 意識轉換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한 때라 할 것이다. 國民들의 曠은 意識構造와 舊態依然한 정신상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국제화 추진은 한낱 口號에 그칠 것이며 보다 못한 후진국으로 전락될 것이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서도 위정자나 주체자인 국민들의 精神力가 衰退하고 타락되면 국가의 운명은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이며 국민의식이 근면실실하고 강인하면 그 나라가 발전하는 것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배운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 민족이 인류역사의 대열에서 탈락되는 것은 그 나라의 民族精神이 무력했기 때문으로, 한국가가 국제사회에서 후진국으로 전락되는 것도 그 나라의 國民精神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제화추진을 주창하는 것도 그 뜻이 여기에 있으며 이를 기필코 이룩하기 위하여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하여 구태에서 벗어나 예절문화, 과학문화가 공히 선진국으로 진입하자는데 그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혼을 면면히 이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슬한 의철을 물리치면서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온 지력있는 민족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난관이 닥쳐오더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무서운 끈기와 용기를 간직하고 있는 민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슬기와 지혜로 이 감산을 지켜 온 우리 조상들의 면면을 보면 분방을 만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명석한 두뇌로 神에 가까운 정도로 천제적 지혜로 생활 주변의 변화를 연구하여 생활의 지혜를 수천년 동안 慣例로 살아왔던 것을 오늘날 젊은이들은 고정관념이라 하여 이를 迷信視하면서 고정관념을 깨자는 등 생활관례를 탈피하려 한다. 편의상 관례를 깨는 것이 생활에 편리한지는 모르나 그로 인하여 오는 재해를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이 사회는 음양의 이치에 의하여 善惡이 있는 법인데 善으로 가는 길에서 行路를 바꾸면 惡으로 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惡으로 가는 行路를 바꾸면 善으로 가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사회는 元亨利貞이라 하는 天理가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의 현명한 생활양식으로 규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年下 사람에게 人事를 할 때 “자네 雁行이 몇인가”하고 물어본다. 이는 다시 말해서 “자네 형제가 몇인가”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안행이 몇인가 하고 물었느냐는 것이다. 雁行이라 함은 기러기 안자에 다닐 행자를 붙인 것으로 기러기가 줄을 지어 날아가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것은 가을 하늘에 줄을 지어 날아가는 기러기는 행로를 바꿀 때나 땅에 내려앉을 때나 언제나 序列를 바꾸지 않고 제자리 秩序를 지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러기는 먼저 나는 순서대로 줄을 지어 날을 때에는 제일 먼저 난 기러기가 맨 먼저 앞에 날으며 그리고 제일 늦게 난 기러기는 제일 뒤에 따르며 날은다는 것이다.

기러기는 지혜로운 동물이라서 제가 놀다간 자리에만 반드시 깃털을 하나 뽑아서 땅에 꽂아 놓고 간다는 것이다. 자기가 왔다간 발자취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 人死有銘이라 하여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또한 기러기처럼 정조를 지키는 동물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자기 목숨과 정절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정조를 지킨다는 것이다. 수컷인 딱 기러기가 암컷을 탐내어 짝짓기를 하려고 달려들어서 머리털을 다 물어뜯겨도 절대로 수절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 혼례식 때 초례청에서도 살아있는 기러기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무로 만든 기러기를 신랑이 안고 와서 신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夫婦間에 기러기와 같이 貞節을 지키

자는 것이다. 그 기러기 목에는 謹封자를 각각 세 가지로 다르게 써서 기러기 목에 걸어서 신부에게 증정하는바 기러기와 같이 부부의 정을 변하지 말고 夫婦一身分으로 百年佳約을 約束하는 본보기라 할 것이다.

이렇게 나는 새도 예절과 질서를 잘 지키는데 반하여 우리 인간은 어떠한가? 고등동물이라 자처하면서 또는 만물의 영장이라 하면서도 예절과 질서를 안 지키니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우리 祖上들은 守節하는 사람은 있어도 離婚하는 사람은 없었다. 現代人은 어떠한가. 守節하는 사람은 없으며 離婚하는 사람은 不知其數이다. 離婚率이 26%나 된다하니 놀라운 現實이라 아니한 수 없다.

우리는 기초질서를 잘 지켜 인류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공헌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지금의 사회는 長幼有序가 무너진지 이미 오래이다 1960년대 초에 독일의 인류학자 부레일 박사가 우리 나라에 와서 3대가 가족으로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식사할 때 보았다고 한다. 그 때만해도 식량사정이 어려워 잡곡밥(보리밥)을 먹을 때인데 제일 먼저 할아버지 밥그릇에 먼저 쌀밥을 담고 그 다음에 할머니 밥그릇에 쌀밥을 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순으로 쌀밥을 내는 식으로 담고 그 다음에 딸 밥을 차례로 담는다. 주부의 밥은 주걱 끝에 있는 밥 약간을 먹는 것을 보고 독일인은 한국이야말로 동방에서 제일가는 예의지국이라고 극찬했다고 한다.

그런데 불과 40년이 못 지난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어떠한가. 그 인류학자가 오늘날의 사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평가했는가? 이는 不問可知일 것이다.

현대는 그와 정반대로 애들이 어른이 되고 어른이 애들의 위치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고 보니 가족 중에서도 年老한 사람이 소외되고 천대받고 있는 것이다. 모두 그런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자신이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 것이 茶飯事이고 보면 부모는 부모대로 독거생활을 하려고 한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무자녀 獨居老人 수는 50,000여 가구에 불과했는데 1997년 말 통계 보고서에 의하면 250,000여 명이나 된다 하니 참으로 기막힐 노릇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길까? 이는 자신이 부모를 안 모시기 이전에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노후에 혼자 살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리요마는 차라리 마음 편하게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는 결론인 것이다.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면 혼자사는 생활고를 자초하겠는가? 여기에서 烏有反哺라는 말이 생각난다.

까마귀는 새끼가 어릴 때는 어미로부터 먹이를 얻어먹고 새끼가 자라서 그 어미가 늙어지면 새끼가 먹이를 어미에게 먹여 주

는 것으로 새끼가 어미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까마귀를 보고 孝鳥라 한 것도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한번쯤 생각할 만한 어휘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날아다니는 새도 萬물을 극진히 섬기는데 하물며 萬物의 靈長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까마귀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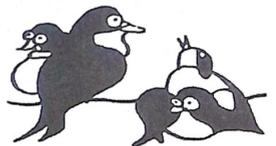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 道德性 回復와 倫理觀을 確立하여 실천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과학문명시대에 사는 우리 人類社會는 人間의 偉大한 존엄성과 인륜적 가치관이 상실된 것을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질만능의 배금주의 사상이 만연되고 불신증조가 팽배해지는 현 상황에서 개인의 이기주의가 盛行하는 사회로 변화할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다. 이것은 亡國病인 개인의 利己心이며 私利私慾 때문에 남야이 죽든 살든 나만 잘살면 된다는 욕심을 하루속히 추방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 초의 신문보도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김포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소매치기를 당하여 여권과 금품 일체를 도난당했다 하니 무일전으로 여권도 없이 여정에서 한국관광을 할 것인가? 易之患之를 생각하면 기가막힐 일이다. 문제는 그 외국인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관광도 하기 전에 異域萬里 외국땅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참으로 막막하고 進退兩難일 것이다. 정말 無秩序한 社會인 것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建設과 發展은 科學文明과 精神文化가 같이 造化를 이루는 秩序있는 나라야말로 地上樂園이며 살기 좋은 나라인 反面 科學文明은 앞서가는데 精神文化는 後退하는 秩序가 相反되는 無秩序한 나라는 恐怖와 無法의 나라로 살기 어려운 나라인 것이다. 秩序 속에는 讓步와 禮節이 있기 때문에 忍耐로서 守則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美德이라 하겠다.

우리도 하루속히 秩序意識을 涵養하여 道德의 꽃이 滿發하는 살기좋은 나라로 建設하는데 다 함께 努力해야 할 것이다.



# 잊지 못할 생도선배님

나는 사관학교에서 군 생활을 시작하여 사관학교에서 35년간의 군 생활을 마감하고 전역하였으니 자랑스러운 사관학교 재수생이었다고 자부하며, 가끔 지나간 반평생의 군 생활을 되돌아보기도 한다. 35년간의 나의 성공적인 군 생활의 비결은 내 자신에게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고달픈 생도시절에 방황하던 나를 따뜻하게 보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배 생도님들의 뜨거운 사랑의 결실이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

1955년 진해 사관학교 CAMPUS 사관생도 생활에서 출고, 배고프고, 떨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거의 매일 밤 어느 내무부 어느 선배에게 강제초청을 받을까 하는 불안한 심리상태와 오늘날 뺑자는 뺑이에 어떠한 보상으로 어느 선배께서 주관하실까 하는 걱정을 하며, 배개야! 너라도 유사사내결에 있어다오 하면서 두 손으로 배개를 잡고 선잠을 자던 버릇은 아직도 습관이 되어 때때로 잠을 깨면 씁쓸한 웃음을 머금기도 한다.

어느 날은 모든 생도들이 1/2TON 트럭을 타고 진해시내에 있는 해양극장에 소위, 인술극장을 가는 외출 기분을 즐기는 날이 있었다. 영화제목은 "THE LONG GRAY LINE"으로 미국 육군사관생도 생활을 소개하는 홍보 영화였다. 생도시절의 대부분의 내용을 우리들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물론 미국 사관학교 교육을 모방하여 발전시킨 우리 교육이라서 크게 차이가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 환경에 있어서 우리의 학과장이 평소 친정을 통하여 하늘이 보여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새고, 눈이 오는 날이면 하얀 눈가루가 책상 위에 떨어지는 우리의 환경과 그들의 환경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의 현격한 격차가 있었다.

영화감상을 마치고, 먼지가 휘날리는 트럭을 타고 귀교하는 생도들의 표정과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시골 한우처럼 무겁고 침울하였다. 그러한 고요한 침묵을 깨고 나는 영화감상의 소감의 일단을 질주하는 트럭 위의 동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마디 지껄었다.

"생도시절 전반적인 모습과 분위기는 우리들 모습과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시설과 교육 환경은 우리들의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다. 우리가 만약 그들과 비슷한 시설과 환경을 구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한 어떠한 고생이라도

도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으나 아무도 후속타가 없어서 모두들 몸조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따라서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인술극장의 일과는 아무런 평가도 없이 조용히 끝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날 저녁 밤 12:00시가 조금 지나서 나는 드디어 N선배의 호출을 받고 야간주반 근무실로 출두하면서도 무슨 영문인지는 감이 오지 않았다. 낮에 인술극장을 다녀오면서 트럭 위에서 불평했다든 이유로 뺑을 맞았든 편평의 진기가 무엇인가라는 심문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일인을 끌려다니면서 심문을 당했다. 아! 나는 이제 완전히 적힌 인물로 전락했구나 하는 생각에, 매사에 의욕을 잃고 만사가 귀찮아 학과 시험도 포기하여 백지 시험지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학과시험 꿈꾸어 오고 공군에서 당시 홍보해 온 사관학교 교육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었고 또 일부 선배 장교 가운데에는 우리를 위로한다는 말이, 너희들 앞으로 고생물이 친히들 여다보인다는 말을 종합하여 볼 때 오로지 이 길밖에 있는 곳을 탈출하는 다른 방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물론 당시에도 자진 퇴교는 상상도, 허용도 안되는 살벌한 시대라서 성적이 달로 쫓겨 나가는 수순을 밟고 있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서 나를 불붙어주게 하고 이끌어주시던 잊지 못할 선배 생도님은 모교 선배도, 지도 선배도 아닌 전혀 안연도, 연고도 없는 처음 뵈옵는 P선배님과 K선배님들이었다. 그 당시 그 분들의 어떠한 연고로 나와 연결되게 되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미지수로 남아 있으나, 거의 24시간 나의 주변을 살피주시며, 심지어는 외출시에도 대동하여 자잠편으로, 뉘를받으며 박봉을 털어 주린 배를 채워 주시고, 디지털로 수박도 사주시고, 옛도 사주시며 선무공작의 감도를 증가시켰다. 어느 정도 선배님들과 친숙한 사이로 발전하자 본인이 시작되었다. 너의 동기생들은 모두가 이 어려운 고통을 잘 참고 열심히 생도시절을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이 고비를 못 넘기고 방황하고 있느냐,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어느 사회에 가서 무엇을



郭泳達(7기)  
· 空軍豫備役中將  
· 前國會議員

하겠다는 것이냐고 다그치며, 나의 연합을 부드럽고도 강하게 꾸짖으셨다.

나는 지난번 당한 일주일간의 악몽 같았던 고문 생활을 고지침한 겨를도 없이, 두 분들의 참으로 헌신적이고 따뜻한 보살핌의 감동에 감화되어 다시금 이를 악문고 생도시절의 재기를 시작하여 나의 진로에 대한 제인자적인 궤도 수정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구세주같이 오고 마셨던 세 분의 생도 선배님들은 그 후 모두 장성으로 전역하여, 지금은 그분들의 사모님들에게까지 나의 오늘의 은인 선배되심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오랜 인연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도시절에 방황하던 한 사람의 운배에게 베풀어주시는 선배님들의 고귀하고 따뜻한 보살핌으로 인하여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이 사관학교 50년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세 분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그때 이후부터 나는 특별히 올바른 교육에 대하여 관심도 많았고, 또 나를 통째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특히 사관학교 졸업 후 2년간의 미국 군사유학기간은 선진국 교육을 접하고 체험하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여, 를 있는 대로 미국의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교를 정갈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우리의 교육과 비교하여 선진국의 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 당시 두 나라의 교육을 한마디의 말로 비교한다면, 우리의 교육은 철저하게 타율적이고 주입식 교육인 반면에 그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조기에 독립적으로 자립하는 교육이

라고 하겠다. 나도 유학 초기에는 자율적, 능동적 교육에 익숙하지 못하여, 이국 나라의 견문을 넓힌다고 마음껏 놀다 보니 학과점수 기준에 미달하는 과락을 받아 주의를 받기도 하였다. 고국에서는 매사에 이거거라, 저거거라와 간섭받던 교육에서 미국 도착 후에는 아무도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일체 없고, 일간, 주간 계획표 기사가 전부였기 때문에 해당일, 해당장소, 해당시간에 할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서, 차츰차츰 자율적, 능동적인 교육이 실상은 얼마나 힘들고 총체적인 개인적 책임임을 알게 되면서 선진교육의 전면목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학과시험 점수를 개선관에 게시할 때는 내가 대한민국의 공군 요원임을 새삼 느끼게 하는 작은 애국심과 공군의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기억에 생생한 일은, 해외교육과정에서 미공군 동료들보다 먼저 SOLO 비행을 성공한 우리를 현재 북장으로 POOL장으로 불고 물 속에 떠밀어 빠르게 허우적거리며 혼자서 물 속을 빠져나오게 하던 SOLO 즉각 전풍은, 한국에서 SOLO 비행 수건방지를 착륙했다고 쿠팡방미를 맞던 것과는 분명히 차원 높고 선진스러운 전통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내에게는 군 생활 마지막 두 번의 보직이 교육사령관과 사관학교 교장직으로 보임받아 내 나름대로의 교육철학과 리더십을 소신껏 구사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는 행운이 돌아오기도 하였다. 단 한 시간의 감의를 위해서는 10시간, 아니 그 이상의 개인준비 공부가 필요하듯이, 군 교육의 총수로서 교육의 100년 대계는 수립하지 못할지언정, 군 교육 발전을 위한 기본교육과 정규교육의 튼튼한 기반을 위해서는 사관학교 재수교육(마지막 보직)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게 교육 전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날로 증가하는 신규과목 때문에 시험기간 동안 생도들은 자정이 넘어 새벽까지 공부하느라 피로, 체력까지 저하되고,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실정이라서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조종사 양성률은 점차 하향 곡선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필수과목, 선택

과목 및 교양과목을 적절히 조정하여 시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과과정의 대폭적인 개정을 단행하여 필수과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였고, 조종사 배출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생도시절 때부터도 관속비행 기회를 주어 조기에 공중 근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유발시켰고, 모든 체육과목을 신속한 판단력, 지구력 및 정확도를 요하는 종목으로 유도하여 학점을 상향조정하였고, 항공라이더 과목을 추가하여 비행의 기본 원리를 직접 체득하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침실과 자습실과 학과장 등의 모든 시설의 조망도를 구분하여 평상시부터 시력보호에 해당하는 각별히 전념토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행입과 전에만 실시하던 정밀 신체검사를 매년 실시하여, 예방위주, 교정위주의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어도 신체적 결함률은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청주지역 9개 대학과 완전개방, 완전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 대학 교수들의 일일 현장생활에 참여하여 사관학교 생활을 통하여 얻은 그들의 결혼은 사관학교 교육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개방과 교류에 대한 준비관계로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기도 하였다.

특히, 오늘날 이 나라의 교육 현실을 돌아볼 때, 이제 50년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학교 교육이야말로 모든 교육의 표본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 사회교육은 언제부터인가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염려되고, 아직도 이념적으로, 의식적으로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는 데도 이러한 교육 풍토를 개선하고 개혁하여야 할 주체인 교직원들이 투쟁하고 있으며, 원로 교수라고 존경받던 교수가 친북세력으로 간첩과 내용하는가 하면, 또 다른 간첩 박사교수는 몇 년 동안을 고단에 버텨서 있어서, 교육의 본질이 오염되고 일부 교직자들의 자질이 퇴색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사관학교 교육에서부터 더 많은 잊지 못할 선배,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많이 배출되어 보다 생산성 있고 효율적인 국가적 인력 자원으로 국가와 거래와 하늘에 이바지하는 "영원한 성무인들의 가족"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100기 공군사관후보생의 교육수료 및 입관식이 2일 오전 11시 朴春澤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교육사령부 연병장(우천시 기지감장)에서 거행되었다.

지난 '48년 5월 항공1기(사관후보생 1기)가 입관한 이래 이번에 역사적인 100기로 입관한 신입장교들은 지난 3월에 입대할 후 소정의 기본군사훈련을 통하여 공군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지휘통솔력, 전문직무지식과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연마하였다.

건군 50주년, 사후입관 50주년에 100기가 입관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더해 주고 있으며, 현재 장교과정으로는 최고 기수를 자랑하고 있다. 오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시기에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어깨에 단 신입장교들은 명예심, 책임의식, 부철한 사명감, 융통성의 오랜 사후 전통을 이어나가

게 될 것이다. 신입장교들은 입관선서를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

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고 국토방위와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수

호할 명예로운 대한민국의 공군장교로서 조국영공수호에 신명을 다 바칠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이날 입관자 중에는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무고시, 외국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출신자들이 다수 있으며 하사관이나 사병으로 복무 중에 각고의 노력으로 다시 사관후보생 과정에 지원하여 장교로 입관한 17명의 신입장교가 있어 주위의 화제가 되었다.

공군참모총장은 축하사를 통해 "힘든 기본군사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영공수호임무의 주역으로 탄생한 신입장교들에게 힘찬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며 그 동안의 신입장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전도를 축복해 주는 한편 "사후 100기 입관은 공군의 역사이며 또한 공군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신입장교들은 선배들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아 21세기형 강한 정예공군 육성에 건전한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母軍·母校 短信



제100기 공군사관후보생 입관  
國防部長官賞 李 太 煥 少尉  
空軍參謀總長賞 閔 晙 喚 少尉

## 공군정신교육원이 「보라매 수련원」으로 개명

- '보라매'는 공군의 진취성과 영공방위의 상징
- 21세기 최정예 정신교육의 도장 자리매김

공군 장병 정신교육의 산실인 공군정신교육원의 명칭이 8월 1일부터 「보라매 수련원」으로 개명하였다.

지난 1일 상오, 보라매 수련원에서는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보라매 수련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및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라매 수련원」 개칭에 따른 현관식이 거행됐다.

같은 「보라매 수련원」으로의 개명은 공군정신전력의 함달을 위한 제도와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공군본부의 검토와 각급 부대 장병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채택되었으며, 공군의 애칭으로 그간 많이 불리어져 왔던 '보라매'는 대한민국 공군의 진취성과 영공방위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수련원'은 인격·기술·학문 등을 단련하는 국민교육 도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 '76년 7월 1일, 3군 최초의 전문 정신교육 기관으로서 서울 대방동에서 공군대학 예하 '정신전력교육부'로 출발한 이래 22년간 4만 2천여명의 공군 장병 및 군무원이 거쳐간 공군 보라매 수련원은 '79년 공군본부 직할 독립부대인 '발승연수원'으로 개편되어 독자적 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으며, '82년 '공군정신교육원'으로 개칭됐다.

'92년 섬무기지로 이전하면서 최신의 교육환경을 갖춘 공군 정신교육의 산실로 한걸음 발전한 보라매 수련원은 이번 개칭을 계기로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교육성과를 토대로 진취적이고 참신한 정신교육을 통해 전 공군인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21세기 최정예 정신교육의 도장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공군 「플러스 원(+1)」 운동 확산

자격증 하나 더 갖기 운동

국방력 극대화, 산업사회 기술인력 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공군에서는 과학기술의 좋아인 「플러스 원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복합기

술 인력을 확보하는데 힘쓰고 있다. 공군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는 560여 종목에 27,000여명이다. 특히 67개 종목 자격증은 군 내에서 교육하고 시험까지 실시하고 있다.

IMF체제 이후 실직 한파와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각종 자격증이 생존카드로서 인식되고 있어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기술군인 공군 장병들은 자격증 하나 더 갖기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2급 이상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공군 장병은 560여종에 27,000여 명으로 이같이 많은 이유는 우선, 첨단 항공전력을 운용하는 과학기술군이라는 특성상 입대시부터 자격증 소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기 때문이다.

입대자 자격증 소지율은 장교 26.1%, 하사관 78.5%, 병 6.9%, 군무원 30%로 나타나고 있다.

## 김진호 교수 미담

공사 경영학과 김진호(27기) 교수는 여자사관생도들의 이야기를 담은 저서 「날아라 메추리」의 수익금 1,021만원 전액을 공사발전기금으로 기탁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날아라 메추리」는 우리나라 삼군사관학교 초유의 여자사관생도와 그들이 속한 공사 49기 생도의 탄생 그리고 여성도 입교 후 서너달 동안의 신중속도와 급녀의 벽을 넘어 여자사관생도들만이 겪어야 하는 애환과 에피소드가 흥미롭게 표현된 책이다.

이 책은 그 동안 공사와 파일럿에 대한 꿈을 간직하고 푸른 하늘을 돌궂해 온 여중고생들 사이에 많은 인기를 얻어 2만여권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김진호 교수는 공사생도들의 진솔한 삶을 담은 이야기기기에 그 수익금도 당연히 공사 발전에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9면에서 이음)

## 6次年度 理事會 開催

▷ 總同窓會 6次年度 事業計劃을 審議하기 위해 지난 7월 16일 18時에 空軍會館에서 理事會를 開催하였다.

▷ 審議事項

I. 6次年度 事業計劃

1. 會報發刊 年 4回 : 4,064,000원
2. 空士優秀卒業生 總同窓會長賞 : 300,000원
3. 太極旗 製作 : 300,000원
4. 巡迴安保講演會 : 3,000,000원
5. 배지 製作 : 630,000원
6. 理事會, 定期總會 : 3,350,000원

計 11,644,000원

II. 6次年度 運營費

1. 人件費 : 10,800,000원
2. 電話料 : 480,000원
3. 行政用品費 및 事務室運營費 : 1,200,000원
4. 封套製作 : 450,000원
5. 豫備費 : 1,000,000원
- 計 13,930,000원
- II. 事業豫算 및 運營金 達成方案
1. 會長 出資金 5,000,000원
2. 六期會後援金 5,000,000원
3. 期生贊助金 5,000,000원
4. 其他資助金 10,600,000원
- 計 25,600,000원

IV. 空士開校 50周年 行事支援

各 期會別로 1백만원 各出 支援 案件에 대해 意見이 많아 결론을 못보고 次期 理事會에서 결론짓기로 合意

▷ 朴邦弘(15期) '98年 3月 9日 別世 大田國立墓地 安葬 喪가 弔意를 表합니다.

▷ 崔玄圭(3期) '98年 7月 15日 別世 大田國立墓地 安葬 喪가 弔意를 表합니다.

# 건강 Health

# 修心健康管理法



최 호 근(6기)  
· 한국통신기술공사(주)고문

는 67.7세, 女子는 75.7세로 늘어나고 고령화 社會로 접어들고 있다.

원래 하나님은 人間에게 잠재하신 수명은 120세라고 한다. 人間들이 生活하면서 수명의 관리를 잘못해서 주어진 명을 다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데 本來 수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물론 등산이나 골프, 조깅 등의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우선 生에 대하여 어떤 태도의 결정과 자세의 선택이 필요하다.

바로 노후의 생활철학은 人生의 根本적인 豫言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지혜요, 성실한 사색이며, 끊임없는 탐구요, 엄숙한 비판이며, 깊은 대화의 중요한 결단인 것이다.

우리는 철학이 있는 人生을 살아야 의미있는 生, 보람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분명한 高度産業 社會에서 情報社會로 넘어가는 과정에 살기 때문에 생존경쟁이 시달리다 보면 돈만 생기기만 하는 哲學이 없이 그냥 되는대로 살아 가기 쉽다. 그렇게 되다 보면 經濟的 動物로 변하여 먹고 자고 하여 享樂과 奢侈속에서 빠져들어가 墮落한 人生살이로

된다. 그래서 항상 배움 속에서 탐욕을 버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리己心과 교만을 버리고 자만하는 마음을 멀리 하고 겸철한 자기점검, 엄숙한 자아반성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밝은 理性의 눈과 맑은 良心의 빛으로 나 자신을 조명해 보아야 한다.

또 어떤 생각, 어떤 思想을 가지고 산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肉體는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글공부보다 마음공부이다. 마음공부의 根本은 두 가지 原因이 있다.

그 하나는 修心이요,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닦는 것이고, 또 하나는 用心으로 마음을 바로 쓰는 것이다.

사람에게 결모양보다도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결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란 만물이 모두 드러가지이다. 육체는 障礙라 하더라도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 사람을 다르게 만든다. 이처럼 안으로 충실한 사람, 속으로 알찬 사람이야말로 참된 人格者인 것이다.

따라서 人生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이고 정신 자체인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마음의 산물이요, 마음에 의해 지배되고 좌우되는 것이다.

정신은 인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좌우한다. 정신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위대한 가능성과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 잠재력을 개발해야 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는 나약한 생각을 하면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다.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고, 精神一到何事不成이라는 말이 결코 허말이 아니다. 우리는 자기의 내적 잠재력을 부단히 개발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물질력은 유한하지만 정신력은 무한하다. 그러므로 정신은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안쓰면 무너지고 늙어간다. 생명과 기회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다리는 걸어야 튼튼해지고, 손은 써야 강인해지고, 심장은 뛰어야 젊어지고, 머리는 쓰면 명석해진다.

현대인, 즉 나이든 사람은 물질주의의 함락사상의 타류와 오염 속에서 정신의 위대성을 망각하고 정신의 무한한 힘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그것을 잘 쓰느냐 잘못 쓰느냐 또 바로 쓰느냐 나쁘게 쓰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惡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肉體인 健康 또한 마음에 달려 있으니 修心과 用心에 큰 關心을 갖고 幸福한 나날을 보내면 틀림없이 健康하게 天壽을 누릴 것으로 確信한다.

사람이 追求하는 最高의 價値는 幸福이다. 이 행복은 사람마다 그 條件이 다르다.

어느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을 말할 것이요, 어느 사람은 權力을 말할 것이요, 또 어느 사람은 名譽를 꼽겠지만 돈을 잃은 사람은 적게 잃은 것이요, 名譽를 잃으면 全部를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아마도 건강이 아닌가 싶다.

老人들은 모두가 健康한 몸으로 長壽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健康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첨단의학의 발달과 풍요로운 食生活로 平均壽命이 男子

## 1. 당뇨의 역사

약 2천5백년 전, 황제 내경에 또는 장중경의 상환론에서도 당뇨병을 "독마름병"이라 하였고, 진시왕이 말년에 몸이 비만해지고 시녀와 악사들을 데리고 즐기는데 갑자기 정력이 쇠하매 어의(임금님의사)를 데려다 진찰을 하니 "오줌꿀병"이라 하였다.

이는 소변이 물만 풀갈이 달아서 생기는 병인데 여색을 즐기니 신장이 허하고 양기가 밖으로 빠져나가 신장기능이 약해진 것을 말한다. 인도 사람들도 또한 당뇨병(소갈증상)을 "단오줌꿀병"이라 부르며 요가와 명상의 운동처방을 내었는데 이는 마음의 병(스트레스)이라 하였다. 그리스에서도 소변과 당분이 강물처럼 흐르고 사람이 말라서 죽는 다 하여 다이아버티스(Diabetes)라 명명하며 다이아버티스 약을 발명했다. 조선왕조의 왕이나 세자빈들이 소갈증(당뇨)으로 인하여 운동부족, 영양과잉섭취, 정력부족으로 인하여 발기부전, 전립선

염, 요실금 증상이 많았을 것이라고 본다.

## 2. 당뇨병의 증상

당뇨병은 유전적인 체질인자와 후천적인 게으름이 원인이고 우리 몸에 섭취한 영양이 남아서 발병하는 병으로 보았다.

초기 증상으로는

가. 구갈(입이 마름) - 당이 몸 밖으로 배설되기에 입이 마르는 증상

나. 다뇨(소변을 많이 본다) - 물 속에 당이 많으므로 소변을 통하여 배설하는데 소변에 당이 섞이므로 소변이 달고 거품이 뜨고 심해지면 생식기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질환(가려움증)이 생기게 된다.

다. 다식(많이 먹는다) - 당이 먹어도 소화액이 많아 소화가 잘되어 마르게 된다.

라. 당뇨병이 있으며 체중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3~4개월이 지나면 살이 약간 쪼고 그 후 이유없이 살이 빠지고 피곤하며 소변이

많아지고 입이 마르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한다.

마. 항상 힘이 무겁고 열구리, 허리가 아프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정력이 부족하게 되어 급격히 성생활이 안되며 발기도 안

타난다. 그러므로 당뇨병 가계끼리는 결혼을 금해야 한다.

나. 모든 사람이 영양관리를 잘못해서 나타난다. 현대인들은 영양식이 영양소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인슐린 기능이 약해지기에 과잉흡수된 영양관리를 받는다.

다. 몸속의 정제된 에너지가 운동으로 인해 열에너지화 되어야 하는데 축적된 원자가 혈액순환장애로 나타난다.

한방의학에서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소(심장, 폐장)는 심장에 기능이 약해져 불인, 초조, 험심증, 심근경색으로 당뇨를 만든다. 폐장에 기능이 약해져 기관지염, 천식, 기관지 확장, 폐결핵으로 당뇨를 만든다.

중소(위, 담장, 취장, 간)에 이상이 있을 때는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취장염과 간장에 이상이 생기면 간염, 간경화, 황달, 대장염, 만성간염이 당뇨를 만든다.

가. 부모나 할아버지가 계에 이상이 있었으면 나

타난다. 그러므로 당뇨병 가계끼리는 결혼을 금해야 한다.

나. 모든 사람이 영양관리를 잘못해서 나타난다. 현대인들은 영양식이 영양소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인슐린 기능이 약해지기에 과잉흡수된 영양관리를 받는다.

다. 몸속의 정제된 에너지가 운동으로 인해 열에너지화 되어야 하는데 축적된 원자가 혈액순환장애로 나타난다.

한방의학에서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소(심장, 폐장)는 심장에 기능이 약해져 불인, 초조, 험심증, 심근경색으로 당뇨를 만든다. 폐장에 기능이 약해져 기관지염, 천식, 기관지 확장, 폐결핵으로 당뇨를 만든다.

중소(위, 담장, 취장, 간)에 이상이 있을 때는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취장염과 간장에 이상이 생기면 간염, 간경화, 황달, 대장염, 만성간염이 당뇨를 만든다.

하소(신장, 자궁)의 신장기능이 약해져 신장염, 신부전, 만성방광염, 정력부족, 양기약화로 원인이 되고 무질서한 성생활로 만기부전, 산후허약, 유산, 성인연인 고혈압, 동맥경화, 류마티스관절염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다.

## 4. 당뇨병의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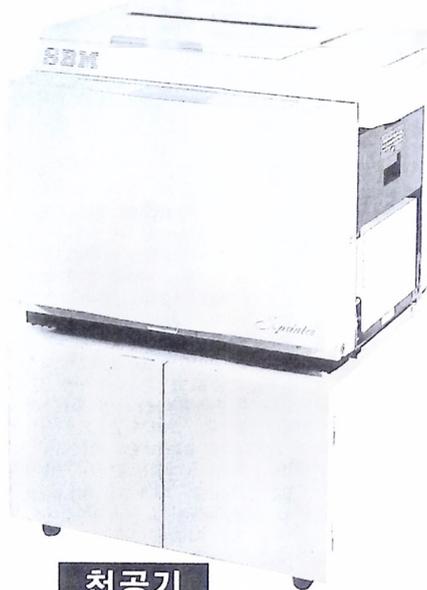
당뇨병은 합병증으로 가려움증(소양증)과 여러 가지 피부질환이 생긴다. 또한 눈의 이상으로는 시력감퇴, 백내장, 녹내장, 망막염이 오는데 이때는 녹용팔미탕이 좋다. 신경계 이상으로는 좌골신경통, 요통, 손떨림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가미귀미탕이 좋다. 잇몸이 붓고 치아에 열증이 생길 경우에는 녹용대보탕을 복용하도록 한다.

식이요법으로는 섭생을 잘해야 하며, 달고, 시고, 짜고, 기름진 육식성 음식은 피해야 한다(콩류잡곡밥이 좋다). 그 외에 운동은 꾸준히 해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과격한 운동은 피하도록 한다. (편 집 실)

# 당뇨병

# 사무기의 선두,

# 개념을 달리한다



### 디지털 복사 인쇄기

- 해상도 : 400DPI
  - 인쇄속도 : 분당 최대 150매
  - 제판과 인쇄 : 20초 소요
  - 축소 4단계, 확대 3단계
  - ZOOM(50%~200%)
  - 5색 컬러 인쇄
- ※SP-3350 제품은  
'98년도 조달청 단가계약제품  
가격 295만원(VAT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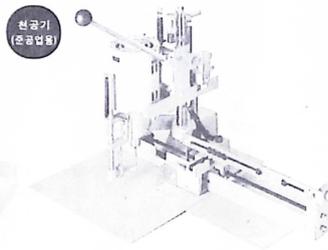
### 천공기



천공기 (사무용)

VS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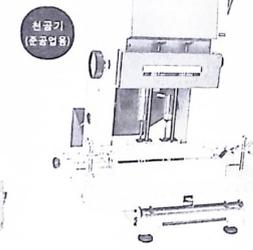
- 50m/m천공가능
- 고정가이드
- 천공 찌꺼기 모음받이



천공기 (준공업용)

D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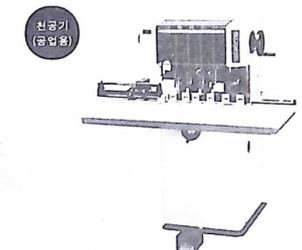
- 50m/m천공가능
- 특수처리 Drill Bit
- 4~6구멍 타공위치 임의설정
- 간격조정이 자유자재



천공기 (준공업용)

VS 200

- 50m/m천공가능
- 2구멍 동시 천공(간격 무단조정)
- Table 이동식으로 간격 조정 용이
- 뛰어난 모터의 성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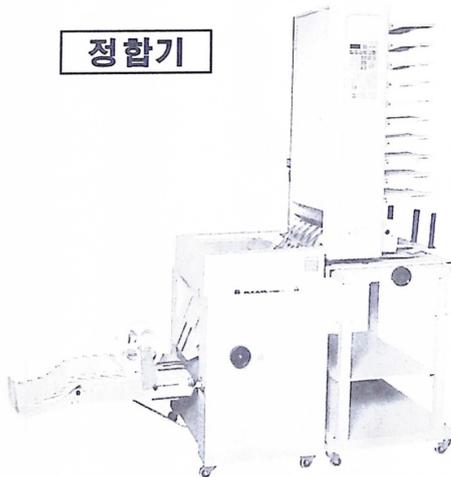


천공기 (공업용)

LA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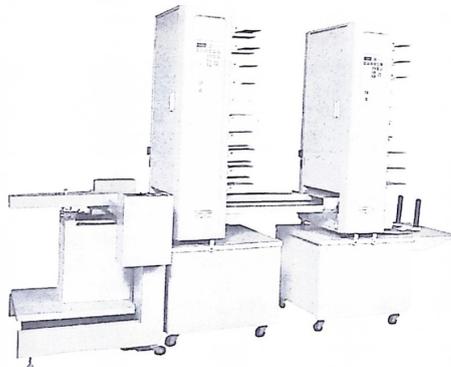
- 50m/m천공가능
- 4구멍 동시 천공
- 구멍간격 조정 용이
- 다양한 종류의 지진 천공이 가능

### 정합기



EC-4500+FOLDNAK 4/6/8

- 최대 10단 정합(40페이지)
- 절제본
- 용지 적재 : 각 단 200매
- 크로스 적재(20°)
- 분당 60매 처리



EC-4500/EC-4500L

- 20단 정합(80페이지)
- 각 단 200매 적재
- 분당 60매 처리



K - 50

### 자동 제본기(최대제본 50m/m)

- 제본 두께에 따라 시간 자동설정
- 자동 개폐 기능
- 자동 열차단 기능

株式会社 三一事務機

© 100-392 서울特別市 中區 樊忠洞 2街 162-1  
 本社 TEL : (02)272-1871(代)  
 (02)263-3141(代)  
 FAX : (02)273-1554  
 工場 TEL : (0342)701-4616

※ 기타 사무자동화 주변기기에 대해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